

06 고 교 · 대 학 비 용

3년 · 4년 비용 계산표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고등학교 3년	3
03 대학 4년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빈칸을 채우는 양식 — 고교 3년과 대학 4년을 각각
- ◆ 채울 때 쓰실 **기준 숫자**를 앞에 실었습니다
- ◆ **빼기 칸을 잊지 마십시오** — 지원과 장학을 안 빼면 결론이 잘못 나옵니다
- ◆ **잘 풀렸을 때와 안 풀렸을 때** 두 번 계산하시라는 까닭

01 · 먼저 사실부터

7년을 한 장에

「전부 합치면 얼마나 드나요.」
고등학교 3년과 대학 4년, 모두 7년입니다. 항목이 흩어져 있어 한 번도 다 더해 보지 않은 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는 빈칸을 채우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채우실 때 쓰실 기준 숫자를 먼저 드립니다. 앞 편들에서 다룬 것입니다.

무엇	기준값	어디서 나온 숫자
고교 학부모부담금 (일반고)	연 71만	2023년 결산 집계
고교 학부모부담금 (광역 자사고)	연 850만	같음
고교 학부모부담금 (전국 자사고)	연 1,356만	같음
고교 사교육 (참여 학생)	월 79만	2025 사교육비조사
대학 등록금 (중앙값)	연 837만	대학알리미 50개교
국가장학금 (1~3구간)	연 600만	한국장학재단

이 숫자는 견주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학교와 집집마다 다릅니다 — 빈칸에는 를 넣으십시오. **알아보신 실제 숫자**

출처: 각 편에 적은 대로입니다. 기준값은 중앙값·평균이라 우리 집의 값이 아닙니다.

02 · 고등학교 3년

빈칸을 채우십시오

항목	1년	3년
학교에 내는 돈	☐	☐
기숙사비	☐	☐
교복·교재 (첫해)	☐	☐
현장학습·수학여행	☐	☐
사교육	☐	☐
교통비	☐	☐
받을 수 있는 지원 (빼기)	- ☐	- ☐
3년 합계	—	☐

일곱째 줄을 잊지 마십시오. 교육비 지원·교내 장학·사회통합전형 감면이 여기 들어갑니다. 더하기만 하고 빼기를 안 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교육 칸이 대개 가장 큼니다. 학교를 고르실 때 「그 학교에 가면 사교육이 늘어날까 줄어들까」를 함께 세셔야 견줄 수 있습니다.

항목 구성은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항목과 이름이 다르니 **학교에 직접 물어 채우십시오.**

03 · 대학 4년

빈칸을 채우십시오

항목	1년	4년
등록금	☐	☐
입학금 (첫해)	☐	☐
사는 돈 (기숙사·방값)	☐	☐
보증금 (한 번)	☐	☐
교통비·식비	☐	☐
교재·실습비	☐	☐
국가장학금 (빼기)	- ☐	- ☐
교내 장학 (빼기)	- ☐	- ☐
4년 합계	—	☐

셋째 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앞서 본 대로 기숙사 수용률 중앙값이 18.7%입니다. 못 들어갈 경우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십시오 —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곱째·여덟째 줄**이 등록금 칸만큼 큼니다. 빼기를 안 하면 「못 간다」는 결론이 잘못 나옵니다.

항목 구성은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지역·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제 숫자로 채우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채우고 나서 볼 것

다 채우시면 이 넷을 보십시오.

#	무엇을	왜
1	가장 큰 칸이 어디인가	거기가 줄일 자리입니다
2	빼기 칸을 다 찾았는가	안 찾으면 크게 나옵니다
3	가장 불확실한 칸이 어디인가	기숙사·사교육이 대개 그렇습니다
4	7년 내내 감당할 수 있는가	중간에 못 내면 아이가 다칩니다

3번을 두 가지로 계산해 보십시오. 잘 풀렸을 때와 안 풀렸을 때입니다 —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사교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안 풀렸을 때도 감당되면 그 계획은 단단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확인하실 여덟 가지

☐ 학교에 직접 물어 채웠는가 — 짐작으로 채우지 않았는가

☐ 사교육 칸을 넣었는가

☐ 기숙사에 못 들어갈 경우 로도 계산했는가

☐ 보증금 같은 목돈을 넣었는가

☐ 교육비 지원 을 알아보았는가

☐ 국가장학금 구간을 확인했는가

☐ 대학 교내 장학 을 알아보았는가

☐ 7년 합계 를 가족이 함께 보았는가

마지막 항목을 권해 드립니다. 돈 이야기를 아이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아는 아이가 더 잘 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담을 덜 느낍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채우고 나면 학원을 줄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사교육 칸이 대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들어 드리는 까닭은,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이 가장 아깝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고 나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은 값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자리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비용 계획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아이에게 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희는 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좋은 방식 — 「우리 형편에 무슨」, 「이만큼 들어는데」. 이건 정보가 아니라 **부담**이고, 아이가 **죄책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방식 — **같이 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만큼 들고, 이만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된다」를 **숫자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원은 안 다녀도 될 것 같다」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Q. 돈 때문에 학교를 낮추는 것이 맞나요?

「낮춘다」는 말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앞 편들에서 다룬 대로 **학교 갈래는 위아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입 모집의 대부분이 내신을 보는 전형**입니다 — 학비가 적은 학교에서 내신을 받는 것이 **불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7년으로 보십시오.** 고등학교 3년에 크게 쓰고 **대학 4년에 못 쓰게 되는 것보다, 고르게 쓰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드는 돈이 더 큼니다.**

그러니 이건 **낮추는 판단이 아니라 배분하는 판단**입니다. 어디에 쓸지를 정하는 일이고, **집집마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7년치를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가장 큰 칸과 가장 불확실한 칸이 보이면, 그다음 판단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 자료의 기준값은 각 편에 적은 공개 자료에서 왔습니다. **중앙값·평균이라 우리 집의 값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학교·대학·지역·가정마다 크게 다르니 **직접 확인해 채우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